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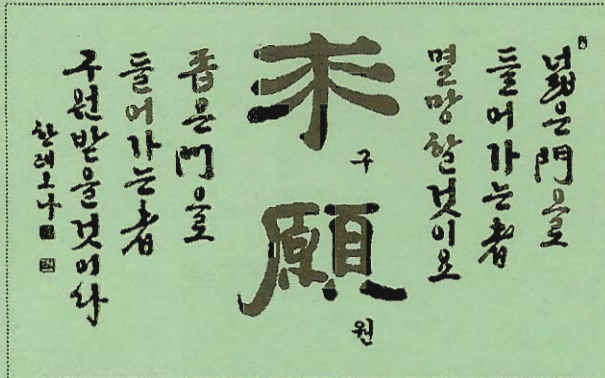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1주일
제3권 39호(다해) 2010·8·22

[묵상]



<글 : 한서란 레오나/서예인회>

하느님 나라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누가 초대 받았을까요?
주님과 음식을 나눈 적이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구경한 적이 있는 사람들?
그렇진 않나 봅니다.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는
사망의 모든 사람들이 초대받았지만
주님께서 어떤 이들은 쫓아내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안다고 항변해 보지만
"불의를 일삼는 자"라는 호통만 돌아옵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할 영광이 주어진다고 해도,
생명의 말씀을 경청할 기회를 가진다고 해도
내가 정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 밖으로 쫓겨난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쉬워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처럼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보다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구원을 향한 우리의 여정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인가 봅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에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에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레 (작수달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에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0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서인수 요셉, 강신봉 안드레아, 신현익 (생)최희철 사도요한, 예나 & 루이스
주 일 낮 미사	(연)조지 가보라, 서인수 요셉, 이현호 요한, 고준희 제임스, 여성분 로사, 이영자 마리아, 엄은섭 도로테오, 김시형 시릴로, 강태람, 서순예 마리아, 김인영 베드로 (생)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서병교 라파엘, 권순봉 요안나, 주태욱 토마스, 김호인 벨라렛다, 박재홍, 박정현 어거스틴, 조데레사, 조성윤 클라라 가정, 홍주희 안나, 이근모 마리오 & 이행자 리드비나 가정, 제32차 남성 꾸리실로 수강자들(김성현 유스티노, 이철우 야고보, 김용상 페트릭)과 봉사자들, 남가주 제66차 ME첫주말 참가부부(이현창 야고보 & 강은진 켈마, 장수창 요한 & 장주란 마리아)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66,18-21
화답송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뜻나라 백성들이 주님을 찬미하라.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사랑 우리 위에 께끗하셔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셔라.◎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 12,5-7.11-13
복음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복음	루카(Luke) 13,22-30
영성체송	주님, 땅이 당신 내신 열매로 가득하오니, 당신은 땅에서 난 양식을 먹이시고, 술로 사람 마음을 흥겹게 하시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87	242
봉헌	259	250
성체	Shout to the Lord	301
파견	227	241

2.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 생명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

▶시나이 산의 율법에서 성령의 선물까지

나자렛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율법은 완성되며,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이 주어진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키신다.(마태 5,17 참조)
예수님 안에서 율법은 단 한번에 영원히 "복음", 곧 하느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기쁜 소식이 된다. 하느님의 통치는 모든 생명을 그 뿌리와 본래의 목적으로 되돌려 놓는다. 이것이 새로운 법,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로마 8,2)이며, 이 법의 근본적인 표현은, 베푸는 위해 당신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모범을 따라(요한 15,13 참조)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이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벗어나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1요한 3,14) 이것은 자유와 기쁨과 축복의 법이다.

▶생명의 복음은 십자가 나무 위에서 완성에 이르렀다.

50). 생명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에 대해 고찰한 이번 장을 마치면서 본인은 잠시 멈추어, 창에 찢리셨고 또 모든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는 그분께(요한 19,37; 12,32 참조) 대해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묵상하고자 한다. 십자가에서 벌어진 그 "광경"을 보면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나무에서 생명의 복음 전체가 완성되고 완전히 계시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성금요일의 이른 오후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오후 세시까지 계속되었다. 태양마저 빛을 잃었던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며 두 폭으로 갈라졌다."(루가 23,44-45) 이것은 우주의 큰 동요와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 사이의, 생명과 죽음 사이의 대규모 분열을 상징한다. 오늘날 우리도 "죽음의 문화"와 "생명의 문화" 간의 극적인 분열 한가운데에 서있음을 깨닫고 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영광은 이 어둠에 눌러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영광은 더욱더 찬란하고 밝게 빛을 발하며, 모든 역사와 모든 인간 생명의 중심과 의미와 목표로 드러난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박히셨으며 세상에서 들어올려지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가장 큰 "무력함"을 체험하시며, 그분의 생명은 완전히 원수들의 조롱거리로 내맡겨진 것처럼 보이고, 사형 집행자들의 손에 맡겨진 것처럼 보인다. 그분께서는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며, 모욕을 당하신다.(마르 15,24-36 참조) 그러나 바로 그러한 한가운데에서 그분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본 로마의 백인대장은 외친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마르 15,39) 그러므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가장 무력한 그 순간에 그분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난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영광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계속)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이란 말마디에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마음이 뭔가 답답해져 옴을 느끼게 됩니다.

“구원받는 것마저도 ‘무한경쟁’이란 말인가요?”라는 공허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 봅니다. 어릴 적부터 자원은 오로지 인간뿐인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 너를 짓밟고 죽이는 일에 너더러나게 폭 빠져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 다니기 위해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교, 더 좋은 고등학교, 더 좋은 중학교, 더 좋은 초등학교, 더 좋은 유치원 등등에 다니기 위해 안간힘을 써온 우리에게 ‘좁은 문’은 너무나도 익숙하면서 지긋지긋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도 ‘좁은 문’이라뇨? 어떻게 알아들어야 할까요?

신앙생활도 결국엔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해 다른 이들을 물리쳐서 이겨내야 한다는 뜻일까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설마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문득 신학생 때 수업 중에 어느 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총은 무한하게 크지만, 그렇게 큰 은총을 받아 담아야 할 우리 그릇이 너무 작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자신의 그릇이 작은 줄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느님의 은총이 너무 박하게 작다고 하느님 탓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일등 학교, 일등 직장을 향한 ‘좁은 문’과 구원의 ‘좁은 문’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제가 간파했습니다. 일등 학교, 일등 직장은 누구나 ‘정말로’ 원하기 때문에 그곳을 향한 문은 ‘실제로’ 좁지만, 그와 반대로 구원을 향하는 길을 ‘정말로’ 충실하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실

제로는’ 아주 넓기만한 구원의 문은 좁은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 정치인은 많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처럼 정치하는 사람은 적은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걸으며 외치면서도 구원에 이르기 위해 자신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무척 적은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겠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요, 미안하지만 문을 열어 드릴 수 없겠소.”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얼굴을 보고 아는 사람이라 해주실까요? 우리 얼굴을 알아보셔야 우리가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사실 정답은 우리 양심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한 번 오랜만에 일으켜 세워 볼까요? 정답은...: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미카 6,8)

끝으로, 제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을 남긴 요한 23세 교황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아르 지방의 한 평야에 세워진 바벨 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세기에 건립된 그 탑의 건설은 혼란을 일으키며 중단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유형의 탑들을 사람들은 짓고 싶어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첫째 탑의 운명을 후대의 탑들도 뒤따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회준 루도비코 신부 / 사제평생교육원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래 데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이희정 크리스티나	권순길 체칠리아
제물봉헌자			P.V. 1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이호미 엘리사벳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이태호 바오로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김금자 데레사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하머/카슨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오늘의 묵상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보편적입니다. 아무도 그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일정한 한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이라고 하십니다. ...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며, 그 문은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참된 진리를 찾으며, 언제나 기쁘고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 매일미사에서 -

◆ **목요일 아침미사(9시)는 당분간 없습니다.**

◆ **울트레아 8월 정기 모임**

- 일시 : 오늘 주일(22일) 낮미사 후 회의실, 점심제공
- 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연락 : 간사 이명순 크리스티나 ☎(310)749-0276

◆ **본당 M.E. 8월 세어링**

- 일시 : 오늘 주일(22일) 오후 5시30분, 강당
- 남가주 M.E. 제66차 첫주말에 본당에서 부부 2쌍 참가 장수창 요한 & 장주란 마리아, 이현창 야고보 & 강은진 켈라
- 연락 : 백삼위 M.E.대표부부 김성현 유스티노 & 김희연 루시아 ☎(310)347-1665

◆ **남가주 제32차 남성 꾸르실료 참가자들을 위한 기도**

- 백삼위 본당에서 남가주 제32차 남성 꾸르실료에 3명의 수강자와 2명의 봉사자가 참가합니다. 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기도와 빨랑카를 부탁 드립니다.
- 일정 : 8월26일(목)~29일(주일)
- 수강자 : 이철우 야고보, 김성현 유스티노, 김용상 페트릭
- 봉사자 : 황철수 배드로, 천광락 야고보

◆ **본당 신부님배 축구대회 및 족구대회 개최**

- 일시 : 8월29일(주일) 오후 1시
- 축구대회 : 양업회, 대건회, 원서회, 청년회
- 족구대회 : 성모회, 자모회, 원서회자매, 청년자매

- 선수구성 : 축구 각 7명, 족구 각 6명
- 상품 : 1등 트로피 및 부상 증정
- 연락처 : 박상진 바오로 ☎(213)819-4242, 김철민 요한 ☎(310)740-1502, 이상용 엘리야 ☎(310)650-6057

◆ **백삼위 한국학교 새학기 등록**

- 등록일자 : 8월29일~9월12일(이후 \$10 추가)
주일학생미사~11시 미사 전후
- 등록금 : 첫째아이 \$160, 둘째 \$150, 셋째 \$140, 넷째 무료 (이 금액에는 대교 Enopi 교재 \$40과 SAT II 교재 \$75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수업시작 : 9월12일(주일) 낮 12시~오후 3시
- 대상 : 만 4세반 이상~
- 특수반 문의 : 이해레나 한국학교장 ☎(310)347-8765

◆ **레지오 마리에 야외행사**

- 일시 : 9월11일(토)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 장소 : Ryan Park(P.V.) 점심 제공
- 야외미사와 함께 행사가 있습니다. 레지오 단원의 가족, 협조단원 및 레지오에 관심있는 모든 분은 참석하시어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연락 : 꾸리아 단장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 **전례 협조자 모집**

- 대상 : 1. 독서자-미사 중 독서를 할 수 있는 남·여 교우
2. 해설자-미사 해설을 할 수 있는 남·여 교우
3. 성인 복사단-미사 때 복사를 설 수 있는 남성교우
- 연락처 : 전례분과장 윤희동 안토니오 ☎(310)365-7871
차장 김성현 유스티노 ☎(310)347-1665, 본당 수녀님

◆ **빈첸시오회에서 빈 김치병을 모읍니다.**

- 불우이웃돕기 김치판매를 앞두고 빈첸시오회에서 빈 김치병을 수거합니다.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입니다.**

- 상본(성모님) 폴링카드(전화카드) : \$20 * 사무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8월22일(주일) : 토런스 동 2반(비림밥 \$3)
- 8월29일(주일) : 토런스 서 2반(잔치국수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금영도	김병철	김성일	김옥보	김완태	김유숙
	김재영	김현숙	김형순	나경흠	남성철	민찬기
	박종선	방정복	박기돈	석순영	손춘화	송기철
	안연숙	안재만	안태갑	우영희	유철희	유태현
	육근주	윤석구	이근태	이병찬	이용식	이인두
	임연조	정충로	최금옥	최원석	최의수	황지영
합계 : \$4,485						
미사헌금 : \$2,696						

성전헌금	금영도	김성일	김옥보	김유숙	김현숙	김형순
	나경흠	남성철	민찬기	방정복	박기돈	석순영
	손춘화	안연숙	안재만	안태갑	유철희	유태현
	이근태	이병찬	이용식	정충로	최원석	최의수
	황지영					
	합계 : \$3,145					

공지사항

◆ 주일 학생미사 전례봉사자 연수

- 일시 : 8월28일(토) 낮 12시~오후 3시 강당, 점심 제공
- 대상 : 현재 봉사중인 복사, 독서자, 해설자와 앞으로 전례봉사를 희망하는 학생들
- 연락 : 김정심 크리스티나 ☎(310)490-9662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

- 학기시작 : 9월12일(주일)
- 수업시간 : 주일아침 9시30분 학생미사후~오전 11시45분
- 대상 : 유치부(9월기준 4살반 이상)~12학년
- 등록기간 : 9월12일(주일, 이후 \$10 추가)
- 등록비(1년) :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부터 무료
- 자모회비 : \$40 (가정당)
- 접수 : 미사후 현관 접수처
- Liability 문제로 교구 지침에 따라 주일학교 학생은 반드시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수업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속히 마치주시면 모든 준비에 도움이 되오니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교장 ☎(310)780-0369

◆ 첫영성체/신영세자/견진성사/초상화(영정) 사진 찾아가세요.

- 대상 : 지난 5월 견진성사, 6월 첫영성체 예식과 세례를 받은 학생들은 사무실에서 기념사진을 찾아가세요.
- 영정사진 : 사진을 찍었는데 나오지 않은 분들은 이진행 힐라리오 홍보부장에게 문의 ☎(714)290-4807

남가주 소식

◆ 제 1회 남가주 가톨릭 한인 청년연합 찬미의 밤

- 일시 : 8월 28일(토) 오후 7시~ 11시
- 장소 : 성 토마스 한인 천주교회
(St. Thomas Korean Catholic Center
412 North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문의 : 백삼위 배론 청년회 밴드부장 김기석 바오로
☎(323)206-2657

◆ 성 골롬반 청소년 선교회 새회원 모집 설명회

- 일시 : 9월19일(주일) 오후 2시30분~5시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천주교회 한인회관
- 참석대상 : 기존 회원들과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9~10학년 학생과 보호자 1명
- 지도신부 : 최용훈 요셉 신부
- 신청기간 및 문의 : 8월23일~9월10일까지
☎(323)734~4946, scyc2006@gmail.com

이번 주 단체 모임

8월사목상임위 휴회 (서면으로 회의자료 제출)

다음 주 단체 모임

소공동체 8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찌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율리아나 920-5153	변혜경 율리아나 8/6(금) 오후 7시 920-5153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정기은 비오 8/14(토) 오후 7시 530-7702
	3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문지숙 엘리사벳 8/19(목) 오후 8시 800-5612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강혜원 아네스 780-0369 8/13(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홍광선 & 엘리사벳 543-4953 8/7(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정정현 베네딕타 720-2876 8/14(토) 오전 10시30분, 성당
	4	이은록 요셉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오명섭 미카엘 326-1519 8/20(금) 오후 7시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박희자 마리아 972-9193 8/11(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안희경 크리스티나 750-4051	이상철 크리스토퍼 750-4051 8/14(금) 오후 5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2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김스텔라 213-272-8393 8/6(금) 오후 7시
	3	대전희 : 거주지 역반으로 폐속	대전희 반도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폐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진수 스테파노 808-5005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오명섭 스테파노 891-3688 8/13(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관기 라파엘 541-3087 8/14(토)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김택수 프란치스코 560-6615 8/13(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주보로 배우는 교리

공복재를 지켜야 하나요? ... 성인의 통공이란?

☞ 저는 매일 아침 미사에 참례하고 있습니다. 미사가 끝나면 곧바로 출근하기 위해 집에서 아침을 먹고 미사에 참례합니다. 그런데 영성체하기 위해서는 공복재를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미사만 참례하고 영성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영성체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미사만 참례하고 영성체를 하지않으니까 한편으로 허전한 마음이 듭니다.

성체는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현존하시는 빵, 즉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그분과 긴밀히 일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성체 안에 현존하시면서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기에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성체를 영하면 주님을 모독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각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나서 영성체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1고린 11,27-28)

그리고 영성체를 위하여 신자들은 공복재(空腹齋)를 지켜야 합니다. 공복재란 성체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고 참회의 준비로, 영성체하기 앞서 한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단, 물과 약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이나 병약자,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들은 공복재를 지키지 않고서도 성체를 영할 수 있습니다. 형제님의 경우, 평일미사이기 때문에 식사 후부 터 영성체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한 시간이 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물론, 공복재를 지키는 것은 신자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법의 정신이지 형식이 아닙니다. 맛있게 아침 식사하시고 영혼의 양식인 성체도 맛있게 받아 모시기 바랍니다.

☞ 저는 고등학생인데요, 개신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애들이 저에게 “너희는 성모님 믿는다면서?” 라고 물어볼 때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난감해요.

가톨릭교회 밖의 분들 중에는, 성당 내의 가장 좋은 위치에 성모상을 모시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 교우들을 보고서는 천주교는 마리아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으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이지요.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까요? 예수님이 사시던 곳과 활동하시던 곳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성지(聖地)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를 성모(聖母)라 부르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더



듬기 위해 그 먼 곳을 순례도 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는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성모님을 기억하고 공경을 드려야지요. 성서에 나타난 성모님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느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와 깊은 겸손이지요. 마리아님은 하느님의 뜻을 완전한 신앙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을 수락했고, 온 인류에게 인간이신 예수님을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면 그분을 낳으신 어머니도 마땅히 공경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느님

께 드리는 공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우선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를 예로 들까요? 하느님께는 직접 무엇을 해달라고 정하지만 마리아께는 우리와 함께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느님께 전구해달라고 청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성모 마리아께는 항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하지요. 우리는 성모님을 공경하되 어디까지나 인간으로서의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는 흠숭지례(欽崇之禮), 성모님께는 상경지례(上敬之禮), 성인들께는 공경지례(恭敬之禮)를 드린다고도 하지요. 물론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천주교회를 ‘마리아 교회’라고 부릅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책임도 있지요. 바른 하느님관을 가지고 주변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성인의 통공(通功)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통공(通功)이란,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들과 천국에서 천상의 영광을 누리는 이들, 그리고 연옥에서 단련받고 있는 이들이 모두 교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기도와 희생과 선행으로 서로 도울수 있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통공의 신비는 우리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속죄함으로써 그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하고, 또 천국에 있는 성인들을 공경하며 우리도 그들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은 뒤의 세상을 믿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며, 죽음이란 단순히 하나의 과정일 뿐 영원한 세상이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이어질, 하느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자료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정보마당▶